

|| R&D위원 칼럼 ||

구제역과 시의 상재화, 정부는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박 용 호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본회 R&D위원
전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본고는 지난 2월 24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주관으로 개최된 한림원탁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서울대학교 박용호 교수가 토론 및 제안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편집자 註)

1. 글로벌시대에 부합한 조직이 개편되어야 합니다.

(1) 근거

FTA 확대 및 비관세장벽(Non Tariff Barrier; NTB) 철폐에 따른 우리나라 안전 먹거리 확보를 위한 검역, 방역, 위생 총합시스템 구축(예 : 미국 동식물방역청(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APHIS))

(2) 조직개편 방안

- 1) 국내외 질병방역, 검역, 위생담당 검역본부를 ‘동식물방역청(가칭)’으로 개편하여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
- 2) 단기 개선안으로 평시 및 전시(국가재난형질병발생시) 체제 별도구성 및 운영 : 지자체 방역담당을 검역본부가 통합관리(첨부 1)

2. 국가 재난형 동물질병 관리 시스템 구축에 농식품부가 아닌 정부(총리실 또는 국가안전처)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

[현 농식품부 질병방역체제로서는 연중 발생 방어기능이 부재합니다.]

(1) 소견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고개를 쳐든 FMD와 AI발생소식을 접하면서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동물방역, 검역, 위생은 물론 농산물, 수산물 검역 및 위생관리를 총괄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몇 가지 가슴속에 있는 생각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2) 개선 방안

2-1. 한시적 땀질이 아닌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이 절실합니다!

전체 질병방역과 관리를 총괄하는 농식품부의 전문가 부재와 전문가 집단인 검역본부, 지자체간의 소통과 협력이 미흡합니다. 사람에서 신종플루 등의 환자가 발생하면 전문가 기관인 복지부 소속 '질병관리본부(1급 기관장으로 농식품부 검역본부와 동일)'가 나서서 전문적인 결정과 대응을 하고 전문가 브리핑, 대국민 홍보를 하는 것과 크게 대비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농식품부 차관급에서 질병관리를 총괄하는 보직이 존재해야 합니다. 타 부처 및 지자체, 그리고 검역본부와 관련협회, 농민, 소비자 등 국민들과의 소통과 협업을 이끌어서 무엇보다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첨부 2,3).

2-2. 최근 FMD확산 관련

- 1) 적극적인 백신 개량연구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국내 발생 바이러스 정보등을 전문가들과 즉시 공유하여 학계와 공동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 2) 구제역 발생 시 신속하게 적합한 균주를 이용한 백신 공급과 투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경우, 한국양돈수의사회 등 전문가들이 발생초기에 제안했던 국내발생 바이러스나 유사성이 높은 O가 단일백신을 확보하여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접종할 수 있어야 했었습니다. 현실 대응이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또한 모돈과 자돈 1회 접종하던 방식은 평시에 진행하고 있으나 일단 발생이 현실화되면 즉각 자돈은 2차례 이상 접종하여 소위 '부스터 효과'(첨부)를 이루어내야 하며 특히, 현재 발생하는 FMD 바이러스를 방어하는 특이 항체 (IgG)를 산생토록 유도 되어야 합니다.
- 3) 현재 사용중인 백신의 일부 백신 접종 부작용 해소를 위한 보조제 개발들도 필요합니다. 또한, 동물 개체의 면역 증진을 위한 방안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즉, 백신효과와

방역 증대를 위해서는 개체 및 집단 면역을 상승시키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비특이 면역증강제 등을 대규모로 투여하여 질병 방어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동물은 물론 사람에서도 동일한 접근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첨부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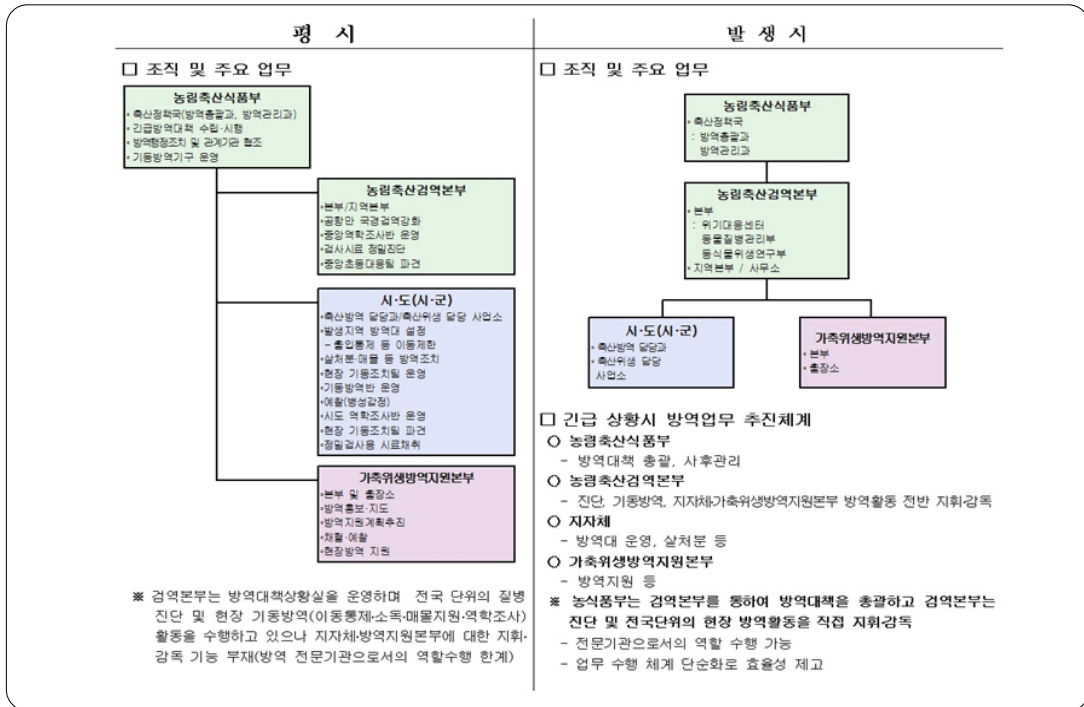
4) 백신접종 만으로 모든 것을 이룬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사람도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아도 독감에 걸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감염농장, 농가, 차량 등을 멀리하고 개인위생과 지역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국가는 국경전염을 차단하는 국가방역, 국제·국경방역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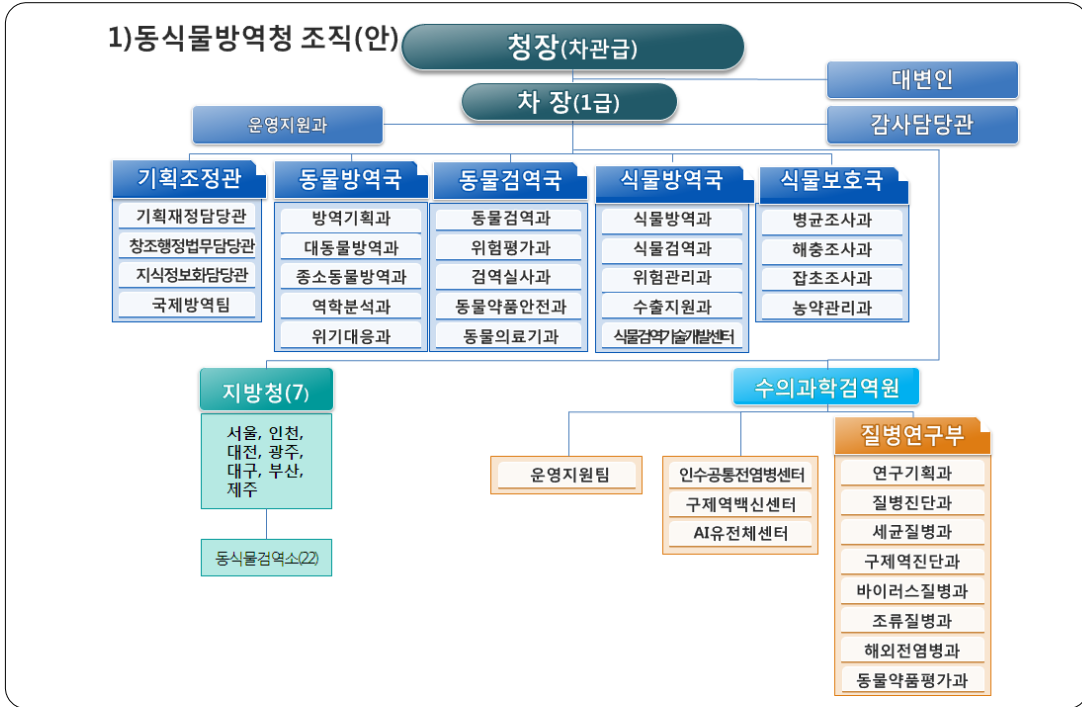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FMD, AI, 지긋지긋 합니다. 하지만 아프리카돈열(ASF) 및 미국 발생 고병원성 AI(H5N2) 등 또 다른 국가 재난형 질병 유입 방지를 위해 정부, 학계, 관련협회와 농가 모두 한마음이 되어 소통과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밝은 다음 세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3. 첨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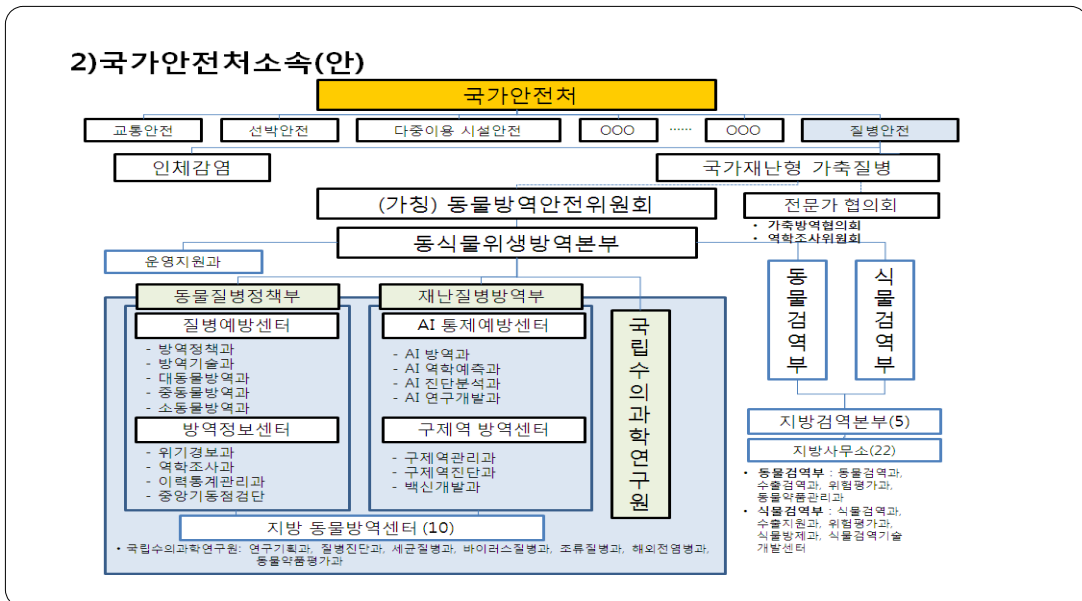
(첨부1) 국가 재난형 가축질병 긴급대응 체계 개편 방안(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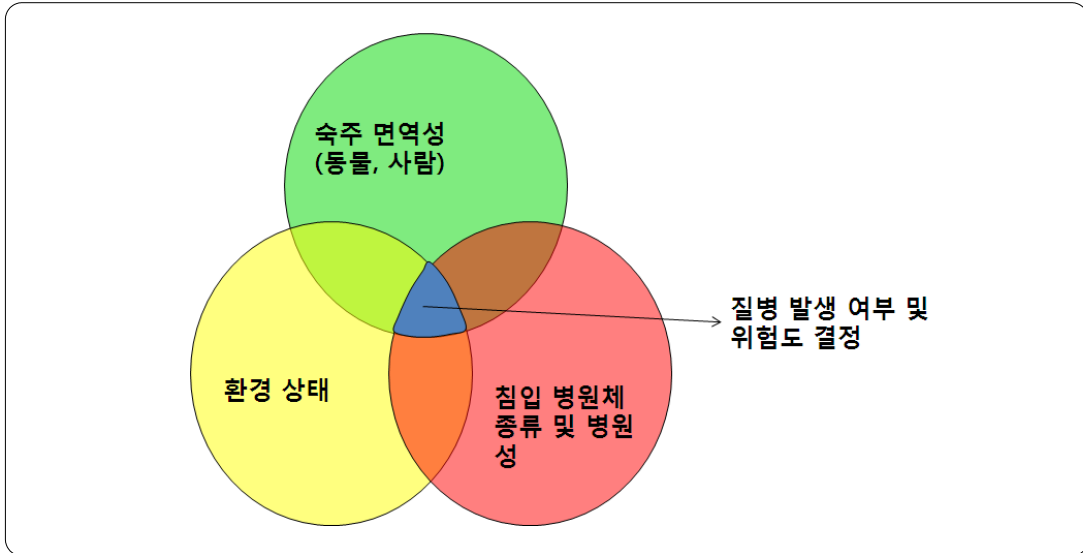
(첨부 2)



(첨부 3)



(첨부 4) 질병 발생 결정 요인



(첨부 5) 푸른색의 IgG가 높아야 방어! Isotype responses

